

# 숲 정 이

교구계간지

상백향

부활 제 5주일

2009년 5월 10일 (나해)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북 505-13-0313012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흥보국 제 1914호,  
주소 | 560-110 전주시 원산구 님노송동 78-3 전화 | (063)230-1004팩스 | (063)283-9365 <http://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mailto:catholic14@hanmail.net)



출처 : [http://cbingoimage.naver.com/data/bingo\\_4/imgbingo\\_86/youjung3/31065/youjung3\\_1.jpg](http://cbingoimage.naver.com/data/bingo_4/imgbingo_86/youjung3/31065/youjung3_1.jpg)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요한 15,1–5 –

입당송 시편 98(97),1-2 참조

제 1독서 사도 9,26-31

회답송 시편 22(21),26-27,28과 30ㄱㄴ,30ㄷ-32(◎ 26ㄱ)

◎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  
서 오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 환호송 요한 15,4ㄱ,5ㄴ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라라. 내 안에 머  
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  
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1-8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  
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서로 사랑하자



원종훈 신부  
(수류 성당 주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영향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그들의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또 전해 줄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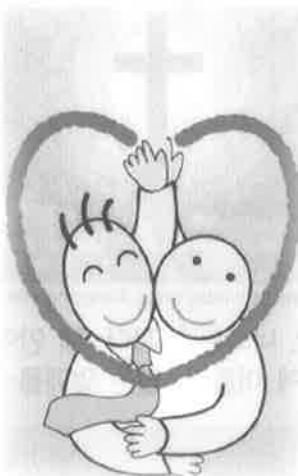
리를 벗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 벗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통과 힘듦은 다 이겨내고 도 남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서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서 엄청난 거리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명이며, 이것 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박윤자  
(심리상담 전문가)

##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답은 쉽게 구해지지 않으며 일단 구해졌다고 해도 다음 순간 변하기도 한다.

며칠 전 한 사람이 전화하여 말하기를, 자기는 ‘원래 소심하고 위축된 사람인데’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 어렵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왜냐면 전화를 한 그 사람은 평소 당차고 시원시원하며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갈래들을 정리한 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물어보았다. “자신이 원래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아니라고 했다. 자신이 너무 설치는 거 같아 겸손해지려고 그리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밀한 진짜 자기모습인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로는 전과 달리 발표하기도 힘들고, 의견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졌다고 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그 많은 모습들 중 좀 더 선호하는 경

향이나 성장과정 중의 자기경험으로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고 선택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여 규정한 후에는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자신이 규정한 것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찾아내어 ‘확증’하는 편향된 사고처리를 한다. 그런 후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는 선택적 규정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모습들은 긍정적인 모습이건 부정적인 모습이건 쉽게 무시되어 버린다. 결국 내 안에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은 무시된 채 ‘특정 사람’으로 ‘제한’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준하여 행동하기보다는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지향하면 그 모습에 맞는 증거들을 찾아 그 모습을 확증해가는 경향성이 작용할 것임 때문이다.

‘나는 소심하고 위축된 사람이다’로 겸손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는 담대하고 시원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조용히 지켜볼 줄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안에서 맘껏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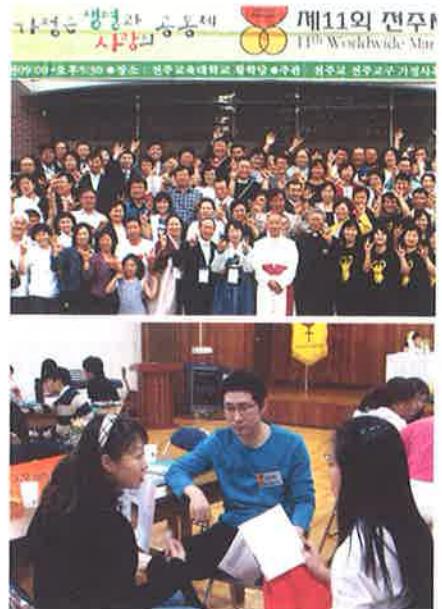


# 5월 가정의 달, 교구 가정사목부 활동을 안내합니다

## ♠ 가정 사목부란?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다는 확신하에 교회는 가정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최우선의 문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셨다. 이에 교구에서는 2002년부터 사목국에 가정 사목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가정 사목을 전개할 준비를 해 왔으며, 2005년부터 가정 사목을 위한 전담 부서와 사제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 사목부는 교구의 사목방침에 따라 다른 여러 사목들과 연대하여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성화되고, 복음화되어 궁극적으로 가정이 ‘작은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사명을 두고 있다.



## ♠ 가정 사목부 프로그램

### ▣ 가족 관련 프로그램

- 선택(Choice) 주말 / ME(Marriage Encounter) 주말 / 가족 주말 / 혼인 강좌 / 가정 성화를 위한 계절 강좌 / 좋은 아버지(어머니) 학교 / 부모, 자녀 참 만남(MBTI 활용) / 아동 및 청소년 자녀 부모 교육 /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 / 생명을 위한 특강

### ▣ 지도자 관련 프로그램

- 가정 분과, 영성 분과 교육 / 가정 교리 / 본당 임원 교육 / 여성을 위한 교육

### ▣ 가정 상담실 운영 프로그램

- 가정 문제 전화 및 면접 상담 / 가정 상담 봉사자 학교 / 상담자 슈퍼비전 / 상담자 재교육

### ▣ 기타 프로그램

- 가정 사목 매뉴얼 작성 보급 / 본당-지구-교구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가정 문제의 예방 및 해결

##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개인별로 가정 사목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자세한 개별 프로그램은 가정 사목부 문의 ☎ 230-1021)

2. 단체, 지구, 본당과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실시.

3. 전화 및 면접을 통해 가정 문제와 신앙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 방법 모색.

-전화 상담(281-0142 영원한 사이) : 매주 월~금(휴일 쉼) 오전 9:30~12:30, 오후 1:30~4:30

가정에 관한 힘든 일들을 가정 사목부와 상의 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원하신다면 가정 사목부를 찾으십시오.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 사목부